

# 卷頭言

理事長 吳 琦 根



불은 우리 생활을 潤澤하게 하고 人類文化를 크게 發展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 때문에 크고 작은 災難을 맛보아 왔습니다. 이처럼 불은 매우 有益한 것인 반면, 施設의 未備와 사람들의 不注意를 틈타서 종종 끔찍한 災禍를 안겨다 주는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文明이 高度化됨에 따라 불의 使用이 增加되고, 또한 이에 比例하여 火災被害도 大型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火災被害은 直接被害과 間接被害로 區分됩니다. 그런데 美國「일리노이즈」工科大學의 發表에 따르면 火災의 間接被害은 直接被害의 다섯배나 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 때 火災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더 이상 말할 必要도 없단 것입니다.

따라서 徹底한 火災豫防對策이 切實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政府當局은 政府當局대로 消防關係民間團體나 個人은 그들 나름대로 火災豫防問題解決에 腹心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政府는 特別法을 만들기까지 하여 本協會로 하여금 全國主要大都市의 特殊建物에 대해 安全點檢을 實施케 함으로써 火災에 대한 恐怖를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協會의 徹底한 安全點檢이 외에 또한 重要한 것은 建物所有者들이 平素에 具體的인 火災豫防對策을 樹立하고, 이를 향시 演習하고 訓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귀찮고 實利없는 일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나, 결파격으로 高貴한 人命과 값비싼 財產을 火魔로부터 防禦하게 되는 것이므로 當然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火災豫防은 建物所有者等의 小數特定人們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火災豫防에는 男과 女가 없으며 老와 少도 없읍니다.

그리고 場所와 時間의 差別도 있을 수 없읍니다.

이제 불에 대한 一般人들의 關心은 높아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火災豫防問題의 解決이多少는 쉬워질 것이라고 展望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서울 市內 한 國民學校의 火災처럼, 전혀豫期치 않던 季節과 場所와 時間에, 그리고 稍少한 原因때문에 火災는 發生하는 것이므로 火災豫防問題는 한편으로는 解決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問題를 若起하는 永遠한 人類의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火災豫防을 위한 우리들의 意志와 技術은 火災發生을 最大限度로 줄일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내놓는 이 冊子가 火災豫防業務와 研究에 직접 參與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建物所有者로부터 家庭主婦에 이르기까지 火災豫防實現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